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보험미가입자의 의료비용, 보험료상승 초래

-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평균적인 가계가 보험미가입자들의 의료비용 보조에 암묵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1천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 소비자 단체인 패밀리리스 유에스에이(Families USA)가 발표함.
 - 또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보험미가입자의 미지급 의료비에 의해 연간 37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단체는 이를 보험료에 대한 '숨겨진 조세(Hidden Tax)'라 칭함.
 - 패밀리리스 유에스에이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의료보험 확대를 지지하는 단체로, 이번 연구는 계리 컨설팅사인 밀리먼(Milliman)에 의뢰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.
- 2008년 보험미가입자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중 40% 정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용은 보험료 상승을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함.
 -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보험미가입자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용은 1160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 중 37%만이 당사자에 의해 지불되고 26%는 정부나 자선단체에 의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남.
 - 지불되지 않은 의료비 430억 달러는 결과적으로 민영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고 패밀리리스 유에스에이는 밝힘.
 - 보험미가입자에 의해 지불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기관의 재정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의료비 인상을 야기하고, 보험사는 의료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임.
 - 패밀리리스 유에스에이는 보험미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암묵적 비용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경제와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공적의료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
(The Associated Press, 5/28)